

박해시기 선교사들은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썼으며,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이들 선교사들은 자신의 장상(長上)인 주교님이나 동료 신부, 고향의 친척 친지들에게 자신의 활동과 생활, 조선의 사정 등을 편지로 써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러한 편지들을 통해 선교사들의 사목 활동은 물론이고 당시 조선 신자들의 신앙과 생활 등을 엿볼 수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로서는 1836년 최초로 조선에 입국하여 활동하다가 1839년 9월 21일에 군문효수형을 받아 순교한 모방 신부의 서한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방 신부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지도부에게 보내는 편지¹⁾

[원문 77쪽]

+

예수 마리아 요셉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지도신부님들께

조선의 수도 한양, 1836년 4월 4일²⁾

친애하는 동료 신부 여러분,

우선 천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하지 못할 장벽들이 있다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만 믿어서 (조선 입국이 불가능해보이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벽들이 극복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명되었습니다. 천주님의 섭리에 따라, 중국과 조선이 현재에 누리는 평화가 지속되 기만 하면, 선교 사업에 필요한 유럽 출신 선교사들을 얼마든지 입국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긴 일반 상황들이 불리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오게 되면, 그들은, 공경하올 고(故) 감사의 명의주교님[초대 조선대목구장 브뤼기에르 주교]과 저처럼, 중국과 달단 지방에 이리 저리 헤매야 하거나, 샤흐탕 신부처럼 국경까지 왔다가 수천 리로 되돌아가야 할 일이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유럽인들의 모습이 기괴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헛소문과 유럽인들은 다른 인종이라는 헛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조선인들과 요동 주민들은 유럽인들을 접촉하는 일을 더 이상 꺼리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으로 가는 길들이 너무 험난하다는 헛소문을 들었어도, 선교사들은 물론이지만, 특히 그들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공경하올 고 감사의 명의주교님을 변문으로 안내하는 일

1) 출처는 파리외방전교회 교문서고 1260권(MEP V.1260), ff.77~94으로, 모방 신부의 자필본이다.

2) 발신지, 발신일 및 수신일은 모방 신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썼다. 일부는 번역에서 제외했다. 판독본 참조.

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 요동 주민들이나 조선인들이나 중국과 달단 지방의 교우들이 그 임무를 단호하게 거부했었습니다. 변문으로 가는 길이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나 핑계를 대면서 주교님을 변문으로 안내하는 일을 거부한 요동 주민들이나 조선인들이나 안내원들은 잘못 생각했었다고 뒤늦게 인정하였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천주께서 섭리하신 데 따라서 조선으로 가려고 하는 선교사들은 중국과 조선을 거쳐 “천국으로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선으로 갈 선교사들은 천주께서 돌보아 주신 덕분으로, 선배 선교사들이 과거에 겪은 모든 고충과 공핍을 다 겪지 않더라도, (조선에 들어가서는) 고충과 공핍을 겪게 될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역경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몽골과 만주 지방을 가로지르면서 저의 눈에 자연히 띠인 일들을 여러분께 보고해 드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휴식을 가질 수도 없이 [원문 78쪽]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해야 하는 수도 없는 일들 때문에, (이번에) 그 보고를 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요동의 수도가 되는 심양에 놓아둔 자료들을 금년 내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료들을 받게 되면, 저는 제가 몽골과 만주 땅에서 거쳐 간 곳들의 이름과 도시와 도시간의 거리와 같은 것들을 보고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경하올 감사의 명의주교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몽골 지방의 펠리케우³⁾ 라는 마을에 도착한 이튿날에, 저는, 주교님과 동행한 고 신부라는 중국인 사제와 함께 주교님의 시신이 모셔진 곳에 가서, 관 옆에서 고 신부와 함께 ‘망자를 위한 저녁기도’를 바쳤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역시 고 신부와 함께, 그리고 동네 주민들 중에서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주교님을 위한 연미사⁴⁾를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주민들이 저를 공동모지로 안내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공동모지 안의 교우들의 축성되지 않은 구역으로 인도하여, 주교님의 유해가 묻힐 곳을 보여 주었습니다.

제가 (주교님께 해드린 최후의) 일들을 아주 냉정하게 해드렸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저는 비탄에 빠져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일들을 해야 할 사람이 바로 저이었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그 일들을 할 사람이 따로 없었습니다. 주교님께서 돌아가신지 이미 한 달이나 되었는데 … 주교님의 묘소는 교우들의 묘역 중앙에, 언덕의 남향 기슭에 있는데, 이 언덕의 소유자는 산서성에서 사는 ‘장희’라는 훌륭한 교우입니다. ‘장희’라는 이 교우는 주교님을 변문까지 모시려고 산서성에서 1,500리 떨어진 서만자까지 왔었습니다.

금요일날이었던 11월 20일 ‘장희’ 씨가 소유하던 소성당의 중앙에 주교님의 유해가 모셔졌습니다. 주교님께서 ‘장희’ 씨가 소유하는 집⁵⁾에서 묵으시다가 돌아가셨고 저도 그 집에서 묵었습니다. 유해가 성당에 옮겨진 이튿날에, 곧 성모자현축일이 되는 (11월 21일) 토요일에, (펠리케우)라는 그 동네와 인근에서 사는 교우들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최대한으로 장엄하게 연도가 바쳐졌고, 교회의 장례 예식서에 따라서 장례식의 모든 부분이 (곧 미사전 예식, 장례미사, 고별식, 매장) 할 수 있는 데까지 거행되었습니다. 저는

3) 펠리케우 : 마가자라고 하기도 하는 이 동네의 현재 주소는 내몽골 자치구 적봉시 동산향이다. 1835년에 교우가 200 내지 300명이 있던 교우촌이었다.

4) 연미사 : 실제로는 장례미사를 지냈을 것이다.

5) ‘장희’ 씨가 소유하는 집 : 원문에 ‘장희씨의 집’으로 되어 있다. 다른 편지에서 모방신부는 “주교님이 산서대목구장이 보내준 안내원(곧 장희씨의)의 친척이나 부모 등의 집에서 15일쯤 묵으려 하셨다”고 썼다(원문 56쪽).

‘장희’ 씨와 그의 친척들에게 주교님의 묘소 옆에 비석을 세워 그 비석에 주교님의 중국식 성(姓)인 소(蘇)자를 새기게 하고, 또 교회에 위험한 것이 안 되면, 주교님의 직책, 그분의 연세, 그분이 돌아가신 때[년]를 새기도록 부탁하였습니다.⁶⁾

[원문 79쪽]

지난 1월에 변문에서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 내용은 저를 받아들이도록 조선에서 온 안내원들을 설득하는 일이 참으로 힘들었다는 보고였습니다. 르그레주아 신부님은 그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으리라 믿는 저는 그 이야기를 다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안내원들을 설득하여, 저는 (양력 1836년) 1월 12일 자정쯤, 조선인 (안내원) 5명을 따라서, 변문을 떠났습니다. 저는 3곳의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첫째 검문소는 바로 변문에 있었고 나머지 2곳은 조선쪽의 국경에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변문에 있는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저는 그것을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천주님과 성모님께 의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저는, 마음을 다해서, 생각이 난 온갖 이유를 내세우면서, 저를 보호해주시기를 성모님께 청하고 저를 위해서 예수님의 천상 도움을 얻어주시기를 열심히 청했습니다. 동료 여러분은 (그때에) 제가 너무 들뜬 마음을 가져서 현실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나실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무엇이나 생각할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생각에 대하여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에 제가 마음에 느끼고 들은 것을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은 “걱정할 것 없다. 무사할 것이다”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문에 있는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하자, 저는 속으로 천주님과 성모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5명의 안내원 가운데서 저를 특별히 돌보던 사람이, 중국어를 할 줄을 알아서, 저에게 중국어로 “보시오. 하나가 지나갔어요”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다른 안내원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말 한 필을 끌고 온 안내원들이 저에게 말을 타라고 했는데, 저는 그들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사양했고 그들에게 타라고 했습니다.

조선과 만주 지방 사이에 사람이 살지 않는 평야와 삼림이 있는데, 그 무인지대의 폭은 약 120리이요 길이는 ... (입니다).⁷⁾ 무인지대⁸⁾의 동쪽에 중국사람들이 ‘알루강’ (이라고 하고 조선 사람들이 ‘압록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조선과 중국(만주) 사이에 국경이 되는 강입니다. 강의 하구에 섬들이 있어서 강의 본류는 3개의 지류로 나누어지는데, 조선과 가장 가까운 지류는 조선과 중국간의 국경이 되는 것입니다. 압록강은 해마다 3,4개월 동안에 결빙되어 있습니다. 조선에 입국하는 다른 방법을 알게 될 때까지, 조선에 입국하려고 하는 선교사들은 (압록강변에 있는 검문소들을 피하여) 결빙된 압록강을 걸어서 건너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른 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당장 이용될 수 있는 길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 길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갈 수 있는 곳까지 아직도 약 20리의 길이 남아 있었을 때에, 저희 안내원(5명 가운데) 2명은 조선 입국에 거추장스러운 말을 타고 저희보다 먼저 길

6) 비석을 세워 ... 부탁하였습니다 : 모방 신부가 부탁한대로 세워졌다. ‘탁수’는 (조선) 초대 대목구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도광’은 당시 중국 황제의 연호이다. 도광 15년은 양력 1835년이며 음력 8월 29일은 양력 10월 20일인데, 브뤼기에르 소 주교가 선종한 날이다. 모방신부가 부탁한 것 가운데 주교의 나이(43세)만 빠졌다. 44쪽의 사진 참조.

7) 길이는 ... (입니다) : 모방 신부는 “길이를 모른다”고 하지는 않고 “길이는 ...”이라고 썼다.

8) 무인지대 : 당시 청 정부는 압록강의 우안과 가까운 지역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했고 비옥한 땅이 경작 되지 않게 했다.

을 떠났습니다. [원문 80쪽] (말을 끌고 간 2명의 안내자를 보내고 난 뒤에) 남아 있던 저희는 느리게 걸어서 밤 10시나 11시경에 압록강의 마지막 지류에 도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지류의 건너편에, 곧 압록강의 좌안에, 가장 무서운 검문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류까지 아직도 10리가량의 길이 남았을 때에, 안내원들이 곧 강변에 도달하여 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었는데, 마침 여러 명의 조선인이 맞은 편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안내원들의 신호에 따라, 저는 실신한 척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아픈 사람처럼 신음하였습니다. 그 조선인들이 (멀리 가서) 저희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까지, 저는 그대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난 저는 안내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길가에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던 여러 패의 조선인을 지나쳐 갔습니다. 변문과 조선 땅 사이에 주막이 전혀 없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은 도중에 요기라도 해야 합니다).

압록강변에 도달한 저희는 결빙된 강의 첫째 지류와 둘째 지류를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전날 밤중부터 강의 3번째 지류에 이르렀을 때까지, 거의 쉬지 않고 걸기만 한 저희 모두가 꽤 피곤했었습니다. 저로 말하면 120리의 길에서 20리 미만 말을 타고 왔지만, 100리 이상 걸어 왔기 때문에 피곤해서 녹초가 되었습니다.

저를 업어주기로 지정되었던 ‘섬베 베드로’⁹⁾가 저를 자기 등에 업어준 다음에, 보폭을 좁게 하여 조심스럽게 얼어버린 강의 3번째이요 마지막 지류를 건너갔는데, 땅에 오른 곳은 조선 검문소와 가까운 곳이었고 의주라는 도시와도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의주를 둘러싸는 읍성의 일부는 바로 압록강변에 있고 검문소는 강과도 읍성과도 가깝습니다. 의주의 읍성에 수문이 있습니다. 의주 읍성 근처에 있는 검문소에 들어가면, 관리들이 늘 하는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데, 그런 위험한 일을 피하려고 저희들은 검문소에 들어가지 않고 수문을 통하여 의주 시내에 들어갔습니다. 3명의 안내원들 가운데 한 명이 수문으로 읍내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탄착거리’¹⁰⁾를 걸어서 시내에 들어갔을 때에 남은 두 안내원과 저는 수문에 들어가거나 수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저희들의 냄새를 맡아서 그런지) 저희가 수문에서 나오고 시내에 들어가는 것을 본 검문소의 개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저는 속으로 “끝장났구나! 검문소 관리들이 밖으로 나와서, 몰래 읍내에 들어하려고 하는 저희들을 잡고 심문할 것이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체포되고 사형을 당하는) 일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어쨌든 천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주께서 저희가 어떤 해도 받지 않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검문소에서 누구도 나오지 않아서, 저희는 무사히 의주 도심지를 향해 갔습니다. 이제 어떤 주막이나 집에서 숨어 쉴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났지만,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아직도 통과하거나 피해야 하는 검문소와 성벽이 있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원문대조 · 역주 : 최세구(Jézégou) 로베르 신부 (파리외방전교회)

9) 섬베 베드로 : 모방 신부 서한 원문 187쪽에, “의주로 나를 안내한 이손빈 베드로...”라고 썼다.

10) 탄착거리 : 쏜 총알이 도달한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하는데, 서양에서 19세기까지 널리 쓰여졌던 머스킷 소총의 탄착거리는 최대 500~700m 정도였다.

M. J.
Directeurs.
D. S. Miset.

16

M. J.

Hanover Capital de la corée,
4 Avril 1836
(reçu le 23 mai 1838)
4 avril 1836


17

Rendons graces à Dieu Messieurs & très chers confrères

Les obstacles humainement insurmontables que des relations inexactes nous avoient fait imaginer ont enfin disparu et fait place à la vérité. Tant que la Divine providence maintiendra la paix qui regne aujourd'hui en Chine et en Corée j'espère que l'on pourra introduire en Corée autant de Missionnaires européens que le demanderont les besoins de la sainte religion. ^{et que les chrétiens lancés de nos missions} j'espère aussi qu'ils ne seront pas obligés comme feu Monsieur Chet Seigneur de Capse, de votre serviteur d'arpenter la Chine et la Tartarie en longeant en large ou comme notre cher confrère Monsieur Chastan de retracer plusieurs centaines de lieues les idées de figures monstrueuses ou d'homme d'une autre espèce n'empêcheront plus les Coréens ou les habitants du Leaotung de recevoir les Européens. les dangers imaginaires des routes n'effrayeront plus les Missionnaires et surtout leurs conducteurs. car voilà s'il faut en croire ces ^{malheureux} habitants du Leaotung et les Coréens et les chrétiens de Chine et de Tartarie à qui l'on proposoit la charge de Conduite Monsieur Chet Seigneur de s'apre à fier men, le motif radical des refus, des excuses sans nombre et des habitants du Leaotung, des Coréens et conducteurs. tous ont reconnu et confessé ouvertement leur erreur. Cependant les Missionnaires que la Divine providence enverra en Corée ne doivent pas oublier que la voie du ciel par la Chine et la Corée doit être la ^{voie étroite} et si la Divine providence leur a délégué d'une partie des peines et des privations ^{qu'ils ont souffertes et qu'ils souffrent dans cette route} ils en trouveront encore assez peut-être de celles qui restent ^{ubi amat ut non laborat}.

J'avais pensé à vous faire la relation de ce que j'ai nécessairement remarqué en traversant la Mongolie et la Marche ouïe mais les occupations

13
assiduer et sans nombre aux quelles je dois me livrer le jour et la nuit sans le
temps d'un repos indispensable ne me le permettent pas. Si les papiers que j'ai
lâissés à Chen yang capitale du deatung me parviennent cette année comme
je l'espère je pourrai vous envoyer les noms des différents lieux de Mongolie
et de Mantchoulie par ou j'ai passé avec leur distance approximative qu'il
y a de l'un à l'autre &c...

Le lendemain de mon arrivée à peltseou village de Mongolie on est mort de
Montes cher Seigneur de sapse je fus avec le S. p. Ko prêtre chinois qui avoit
accompagné ce vénérable Vénérable prêtre en visites les dépouilles mortelles
nous recitames ~~de~~ ^{sur} le cercueil les vers des morts. le lendemain
je celebrai avec le S. p. Ko un service pour le repos de son ame. presque tous
les chrétiens du village y assistèrent. on me conduisit ensuite au cimetière
ou plutôt à la sépulture des chrétiens (elle n'est pas bénie) pour indiquer
le lieu ou l'on inhumeroit Montes cher Seigneur. Vous êtes d'homme ~~peut-être~~
de l'insensibilité avec laquelle vous pensez peut-être que remplirois ce devoir,
la consternation avec laquelle je les remplis devoit s'unir à la nécessité; il
ny avoit personne qui put agir à ma place et remplir les fonctions pour lesquelles
on m'attendoit depuis un mois. on ouvrit sa fosse sur le pendard méridio-
nal d'une montagne au milieu de la sépulture des chrétiens. cette monta-
gne appartient à Tchang hi; un des bons chrétiens du Chansi; il étoit
venu à Chamsi 150 lieues de route ^{à son tour} nous
accompagnés la grandeur de siren à sien men. le Vendredi 20 novembre on
transporta le corps au milieu de la chapelle de Tchang hi cher qui il avoit
été reçu et étoit mort, chez qui je demourois. et le Samedi jour de la
présentation de la très sainte vierge nous celebrames avec toute la solennité
possible un service au quel assistèrent tous les chrétiens du village et des
environs. nous fimes aussi toutes les autres ceremonies funéraires selon le
rit accoutumé autans qu'il nous fut possible. je priai Tchang hi et sa
famille de vouloir bien faire eriger sur l'atombe une pierre sur laquelle
seroit gravé son nom chinois ^{et}  sou, autans que la sûreté de la religion
le permet la qualité et l'année ou il est mort.

nous prolongâmes notre marche de manière à n'arriver à la dernière bran-
 du fleuve sur la rive gauche de la quelle se trouve la Douane la plus redou-
 table, que vers les 10 ou 11 heures de la nuit, une lieue peut être avant d'y arriver
 l'on me dit que nous approchons et que nous allons la passer sous peu, quel-
 ques coreens venoient à notre rencontre au pitot on me fait signe j'amen-
 lais tomber et reste couché par terre gemissant comme un malade, jusqu'à
 ce qu'il ne fust plus nous vîd, ensuite on me fait relever pour traverser
 plusieurs sociétés ^{de marchands coreens} arrêtés sur la route pour prendre leur repas car il n'y a aucun
^{subarage} ^{de rien à de force} jusqu'à ^{ici} en fin nous traversâmes les deux premières branches

7. L'écuyer
à cheval.

et nous arrivâmes à la troisième bien fatigués, de puis ^{de puis} ^{minuit de la nuit} ^{et jusqu'à toujours à pied j'en avais fait 12}
 précédente nous étions continuellement en route, celui qui étoit designé pour
 me porter, pierre Sompex, me prit alors sur dos et nous nous avançâmes
 à petit pas traversant cette dernière branche jusqu'à une perche environ
 de la porte de la douane Coreenne. là aussi se trouve une ville appelée itchoa
 le fleuve coule le long de ses murs, à moins de deux perches de la douane
 dans le mur de la ville d'itchoa se trouve un aqueduc, au lieu de nous exposer
 aux dangers de l'inspection et de questions que font ordinairement les propri-
 de cette douane à chaque voyageur, nous nous enfilâmes par cette aqueduc
 un de mes trois conducteurs étoit déjà passé et à une portée de fusil en
 avant lorsqu'un chien de la douane nous apercevant sortit du trou se prit
 à aboyer contre nous, alors pensai-je en moi-même c'en est fini les douaniers
 doivent sortir ils vont nous voir nous questionner dans fin, ^{en fraude et en conséquence} ^{si} ^{infailliblement} on
 me connoître, que la volonté ^{pour étranger} du bon Dieu s'exécute il n'y a aucun moyen d'éviter
 cette dangereuse nécessité, le bon Dieu ne permit par qu'il en arrivât ainsi, pour
 ne ce fâmer pas de nous introduire dans la ville et personne ne parut.
 je pensois que nous allions entrer de suite dans quelque auberge ou dans quelque
 maison, dans un lieu disposé à me cacher, point du tout, nous avions encore
 une douane à traverser ou à éviter, il y avoit aussi une autre aqueduc dans
 le murs de ce quartier nous enfilâmes encore cet aqueduc, au moment où j'étois
 j'aborderai

[원문 77쪽]

M.M.
Directeurs
d.S.Mis.ét

+
J.M.J.

Haniang capitale de la Corée
4 Avril 1836
Reçu le 23 mai 1838
4 Avril 1836²⁾

Rendons grâce à Dieu, Messieurs et très chers confrères,

Les obstacles humainement insurmontables que des relations inexactes nous avaient fait imaginer ont enfin disparu et fait place à la vérité. Tant que la Divine providence maintiendra la paix qui règne aujourd'hui en Chine et en Corée, j'espère que l'on pourra introduire en Corée autant de Missionnaires européens que le demanderont les besoins de la Sainte religion et que les circonstances le permettront. J'espère aussi qu'ils ne seront pas obligés, comme feu mon très cher Seigneur de Capse, et votre serviteur, d'arpenter la Chine et la Tartarie en long et en large, ou comme notre cher confrère Monsieur Chastan, de rétrograder plusieurs centaines de lieues. Les idées de figures monstrueuses ou d'hommes d'une autre espèce n'empêcheront plus les Coréens ou les habitants du Leaotung de recevoir les Européens. Les dangers imaginaires des routes n'effrayeront plus les missionnaires et surtout leurs conducteurs, car voilà s'il faut en croire ~~au récit~~ les habitants du Leaotung, les Coréens et les chrétiens de Chine et de Tartarie à qui l'on proposait la charge de conduire mon très cher Seigneur de Capse à Pien men, le motif radical des refus, et des excuses sans

1) 판독본은 지정환 신부의 판독 자료를 바탕으로 원문과 대조하여 만들었으며 다음의 원칙을 두었다. 1. 몇몇 단순한 철자오기는 어법에 맞게 고쳤다. 2. 문장의 첫 글자와 고유명사의 첫 글자가 소문자로 되어있는 경우에 대문자로 고쳤다. 3. 일반명사의 첫 글자가 대문자일 경우 소문자로 고쳤다. 4. 문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쉼표·마침표·겹따옴표·콜론을 삽입했다. 5. 문맥상 필요한 단어가 빠져있을 경우 <>괄호에 넣어 삽입했다. 6. 썼다 지운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다. 7. 행간의 글은 위첨자로 표시했다. 8. 밑줄과 밑줄임표 등 표기는 모두 원문에 따른다.

2) '4 Avril 1836'은 모방 신부나 바로 위의 세 줄을 쓴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의 필체다. 발신지·연월일·수신일 정보 이외에 다른 필체로 쓰인 문서정리번호들은 판독하지 않았다.

nombre des habitants du Leaotung, des Coréens et des conducteurs, tous ont reconnu et confessé ouvertement leur erreur. Cependant les missionnaires que la Divine providence enverra en Corée ne devront pas oublier que la voie du ciel par la Chine et la Corée doit être la voie étroite. Si la Divine providence les a délivrés d'une partie des peines et des privations que d'autres ont essayé dans cette route, ils en trouveront encore assez, peut-être, de celles qui restent, mais ubi amator non laboratur...

J'avais pensé à vous faire la relation de ce que j'ai nécessairement remarqué en traversant la Mongolie et la Mantchoulie, mais les occupations [원문 78쪽] assidues et sans nombre auxquelles je dois me livrer le jour et la nuit, sans le temps d'un repos indispensable, ne me le permettent pas. Si les papiers que j'ai laissés à Chen yang, capitale du Leaotung me parviennent cette année comme je l'espère je pourrai vous envoyer les noms des différents lieux de Mongolie et de Mantchoulie par où j'ai passé avec la distance approximative qu'il y a de l'un à l'autre,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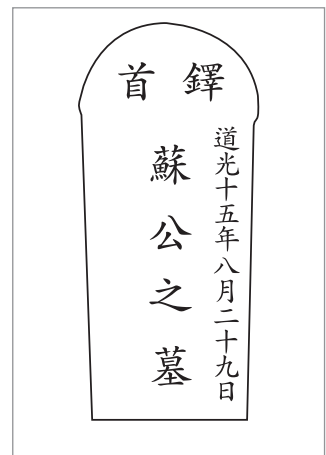
Le lendemain de mon arrivée à Pielikeou, village de Mongolie où est mort mon très cher Seigneur de Capse, je fus avec le R.P. Ko, prêtre chinois qui avait accompagné ce ~~vénérable~~ vénérable prélat, en visiter les dépouilles mortelles, nous récitâmes auprès du cercueil les vêpres des morts. Le lendemain je célébrai avec le R.P. Ko un service pour le repos de son âme. Presque tous les chrétiens du village y assistèrent. On me conduisit ensuite au cimetière ou plutôt à la sépulture des chrétiens (elle n'est pas bénie) pour indiquer le lieu où l'on inhumait mon très cher Seigneur : vous êtes étonnés ~~peut-être~~ de l'insensibilité avec laquelle vous pensez peut-être que <je> remplissais ce devoir. La consternation ~~avec laquelle je les remplissais~~ devait s'unir à la nécessité ; il n'y avait personne qui put agir à ma place et remplir les fonctions pour lesquelles on m'attendait depuis un mois. On ouvrit sa fosse sur le penchant méridional d'une montagne au milieu de la sépulture des chrétiens. Cette montagne appartient à Tchang hi, un des bons chrétiens du Chansi. Il était ~~venu du~~ venu du Chansi, 150 lieues de route à Siven pour accompagner Sa Grandeur de Siven à Pien men. Le vendredi 20 novembre on transporta le corps au milieu de la chapelle de Tchang hi chez qui il avait été reçu et était mort, chez qui je demeurais ; et le Samedi, jour de la présentation de la très Sainte Vierge, nous célébrâmes avec toute la solennité possible un service auquel assistèrent tous les chrétiens du village et des environs. Nous fîmes aussi toutes les autres cérémonies funéraires selon le rit accoutumé autant qu'il nous fut possible. Je priai Tchang hi et sa famille de vouloir bien faire ériger sur sa tombe une pierre sur laquelle serait gravé son nom chinois 蘇 sou, et, autant que la sûreté de la religion le permet, sa qualité, son âge et l'année où il est mort.

[원문 79쪽]

En janvier dernier j'envoyai de Pien men à M^r Legrégeois la relation des difficultés que j'avais eues ^{pour} résoudre les Coréens à me recevoir. Je pense qu'il vous l'aura fait passer ; ainsi je ne vous en parlerai pas. Je partis de Pien <men> accompagné de cinq Coréens sur les minuits du 12 au 13 de janvier. Je devais passer, me dit-on, par trois douanes, la première à Pien men ~~se trouve à pien men~~ ^{même} et les deux autres aux confins de la Corée. L'on m'avait bien indiqué ce que je devais faire pour la passer, mais ce moyen n'était pas ce en quoi je mettais ma confiance. Je m'adressai au bon Dieu et à la très Sainte Vierge, je la priai de tout mon cœur et par tous les motifs imaginables de me protéger et de m'obtenir de Jésus Sa divine assistance. Peut-être, direz-vous, que c'est l'illusion d'une imagination exaltée et hors de la sphère naturelle, libre à l'homme de penser ce qu'il veut : voici selon que je puis l'exprimer, ce que je sentis et entendis dans mon âme : "Tu n'as rien à craindre, il ne t'arrivera aucun mal." Lorsque nous fumes passés, je remerciai le bon Dieu et la Ste Vierge. Mon guide principal parlait chinois, il me dit avec un transport de joie ^{co kouan keou ko^{uo} tchu leao}, "en voilà une de passée". Ils se communiquèrent leur joie et Ilon m'invita à monter à cheval. Nous n'en avons qu'un. Je les remerciai et leur rejetai leur invitation. Nous traversâmes ainsi les plages ^{et} les forêts désertes qui servent comme de bornes à la Mantchoulie et à la Corée. Elles comprennent environ une espace de 12 lieues de large sur de long. Le côté gauche ou oriental est bordé par les trois branches d'un fleuve fameux nommé en langue ^{chinoise} Yalo kiang, branche la plus voisine de la Corée est la limite du légale des deux puissances. Il est glacé pendant trois ou quatre mois de l'année. C'est la seule époque à laquelle les missionnaires pourront entrer en Corée, jusqu'à ^{ce} nous ayons trouvé d'autres ~~smoyens~~ ^{moyens} voies. J'en connais déjà, mais je n'ai encore pu m'assurer si ^{elles} sont maintenant praticables ni comment on peut en user. A peu près deux lieues avant d'aborder ce fleuve, deux ^{de mes} conducteurs partirent avec le cheval qui nous aurait embarrassé à l'entrée de la Corée. [원문 80쪽] Nous prolongeâmes notre marche de manière à n'arriver à la dernière branche du fleuve, sur la rive gauche de laquelle se trouve la douane la plus redoutable, que vers les 10 ou 11 heures de la nuit. Une lieue peut-être avant d'y arriver, l'on me dit que nous approchions et que nous allions la passer sous peu. Quelques coréens venaient à notre rencontre, aussitôt on me fait signe, je me laisse tomber et reste couché par terre gémissant comme un malade, jusqu'à ce qu'ils ne pussent plus nous voir. Ensuite on me fait relever pour traverser plusieurs sociétés de marchands coréens arrêtées sur la route pour prendre leur repas, car il n'y a aucun ^{auberge} de Pien <men> à jusqu'à la terre de Corée. Enfin nous traversâmes les deux premières branches et nous arrivâmes à la troisième bien fatigués,

depuis minuit de la nuit précédente nous étions continuellement en route et presque toujours à pied, je n'avais pas fait 2 lieues à cheval. Celui qui était désigné pour me porter, Pierre Sompey, me prit alors sur le dos et nous nous avançâmes à petits pas traversant cette dernière branche, jusqu'à une perche environ de la porte de la douane Coréenne. Là aussi se trouve une ville appelée Itchou. Le fleuve coule le long de ses murs à moins de deux perches de la douane. Dans le mur de la ville d'Itchou se trouve un aqueduc. Au lieu de nous exposer aux dangers de l'inspection et des questions que font ordinairement les préposés de cette douane à chaque voyageur, nous nous enfilâmes par cet aqueduc. Un de mes trois conducteurs était déjà passé et à une portée de fusil en avant lorsqu'un chien de la douane, nous apercevant sortir du trou, se prit à aboyer contre nous. Alors pensai-je en moi-même : "C'en est fini, les douaniers doivent sortir, ils vont nous voir en fraude, et en conséquence nous questionner sans fin, et infailliblement me connaître pour étranger. Que la volonté du bon Dieu s'exécute. Il n'y a aucun moyen d'éviter cette dangereuse nécessité." Le bon Dieu ne permit pas qu'il en arrivât ainsi. Nous ne cessâmes pas de nous introduire dans la ville et personne ne parut. Je pensais que nous allions entrer de suite dans quelqu'auberge ou dans quelque maison, dans un lieu disposé à me cacher ; point du tout. Nous avons encore une douane à traverser ou à éviter ; il y avait aussi un autre aqueduc dans les murs de ce quartier. Nous enfilâmes encore cet aqueduc. Au moment où j'entrais'abordais

(다음 호에 계속)



브리기에르 주교의 묘비